

국토교통부, “우리 기업의 중앙아 수출 물류 전방위 지원”

- 19일 「국제복합운송 시범사업 세미나」 … 국제화물운송 협력·발전방안 논의

- 국토교통부(장관 박상우)는 7월 19일 오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국철도공사, 물류업계 관계자 등 약 100명이 참석한 가운데, 「국제복합운송 시범사업」 추진성과 및 발전방향 세미나를 개최하였다. (참고1)
 - 세미나는 최근 국제복합운송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됨에 따라 시범사업의 추진 성과를 공유하고, 철도와 해운을 결합한 국제 운송로 현황 및 전망, 향후 국제복합운송 발전방향 등을 논의하고자 마련하였다.
 - 이번 시범사업으로 오봉역에서 출발한 40피트 규격 컨테이너 55개가 부산항, 중국 연운항을 거쳐 철도를 타고 카자흐스탄(우리기업 자동차공장 부품 등), 우즈베키스탄(섬유기계 수출), 타지키스탄(중고차 수출)으로 32일간 (6.13~7.14) 7,100km를 이동하여 도착하였다. (참고2)
- 정부는 '23년 부산에서 개최된 제50차 국제철도협력기구(OSJD)* 장관 회의를 계기로, 국제철도여객운송협정, 복합운송협정 등 정부 협정에 가입하였다. 이로써 국제철도를 활용한 화물운송 물동량 쿼터(권리)를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. (참고3)
 - * 국제철도협력기구 : 유라시아 국가 간 철도를 이용한 여객화물 운송 활성화를 위한 국제기구 (OSJD : 공식명칭인 “Организация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Железных Дорог”의 영어 발음 약칭)
 - 이번 시범사업은 국제복합운송사업을 본격 추진하기에 앞서, 시범사업의 결과를 토대로 미비점 파악 및 개선 방안을 도출하여 실효성 있는 업무 처리 지침 등을 마련하기 위해 시행하였다.
-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 폴란드에서 개최된 제51차 국제철도협력기구 장관회의 등을 통해 중국, 카자흐스탄, 우즈베키스탄 등과 긴밀히 협력해 온 결과 국제복합운송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었다.

- 향후 국제복합운송이 정기적으로 시행되면 국내 기업 수출화물에 대한 정기열차 배정, 도착지까지 직통열차 운행 등으로 적체 없이 안정적인 운송이 가능해지고, 출발지부터 도착지까지 전체구간을 표준운송장(1개)으로 운송하는 등 업무절차도 간소화·표준화될 수 있다. (참고4)

* 기존에는 중국 등 자국 화물 우선 처리, 직통열차 배정 대기를 위한 적체 발생, 구간별 개별계약 등 여러 단계를 거쳐 국제화물을 운송

- 백원국 국토교통부 2차관은 “유라시아 철도를 통해 국내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화물을 운송할 수 있도록 OSJD 회원국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”면서,

- “이번 시범사업이 정기 화물 운송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제철도화물 운송협정 국회 비준 등도 조속히 추진하겠다”라고 밝혔다.

2024. 7. 19.

국토교통부 대변인

참고 1

국제복합운송 시범사업 세미나 개요

□ 세미나 개요

- (時/所) '24.7.19(금), 10:30 ~ 12:00 /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A
- (주최/주관) 국토교통부 / 한국철도공사
- (참석) 국토교통부 2차관, 한국철도공사 사장, 물류기업 대표 등 약 100명
 - * 국토부, 관세청, 코레일, 물류기업(서중물류, 벤마로지스 등), 해운기업(남성해운, 흥아라인), 화주기업(LG전자 등), 연구기관(철도연, 교통연 등), 철도물류협회 등
- (내 용) '국제복합운송 시범사업' 추진성과 공유 및 발전방향 논의

□ 세부일정

시 간	내 용	비 고
10:30 ~ 10:35('05)	개회 및 주요내빈 소개	코레일
10:35 ~ 10:40('05)	축사	국토부 2차관
10:40 ~ 10:45('05)	환영사	코레일 사장
10:45 ~ 10:50('05)	기념촬영	주요 귀빈
10:50 ~ 11:00('10)	발표 1 : 러시아-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라시아 국제운송로 현황 및 전망	한국교통연구원 서종원 박사
11:00 ~ 11:10('10)	발표 2 : 국제철송 현황과 국제복합운송 활성화 방안	서중물류 신동민 이사
11:10 ~ 11:20('10)	발표 3 : 국제복합운송 시범사업 추진성과 및 기대효과	코레일 김원응 단장
11:20 ~ 11:30('10)	휴 식	
11:30 ~ 11:50('20)	토론 및 질의응답 ▶ 사공명 한국철도학회 회장(좌장) ▶ 우정훈 국토부 철도정책과 과장 ▶ 강갑생 중앙일보 교통전문 기자 ▶ 강창주 벤마로지스 대표이사 ▶ 신상철 철도물류협회 이사	

참고 2

국제복합운송 시범사업 개요

□ 시범사업 내용

- (구간) 오봉^{철송} → 부산항^{해송} → 연운항^{철송} → 카자흐^{철송} → 우즈베크^{철송} → 타지키, 약7,100km
 - * 한국(오봉 ~ 부산항) → 해송 → 중국(연운항 ~ 호르고스) → 카자흐(알틴콜 ~ **알마티** ~ 사리아가쉬) → 우즈베크(켈레스 ~ **타슈켄트** ~ 베가바트) → 타지키(스피타멘 ~ **후잔드**)



- (품목/물량) 자동차부품, 가전제품, 중고차 등 / 40피트 컨테이너 55개
 - * (결과) 카자흐(알마티) 36개, 우즈베크(타슈켄트) 7개, 타지키(후잔드) 12개
- (기간) '24.6.13(오봉역) ~ 6.20(중국도착) ~ 7.14(타지키스탄), 32일
 - * (결과) 카자흐(알마티) 28일, 우즈베크(타슈켄트) 30일, 타지키(후잔드) 32일 소요
- (참여) 국내 - 국토교통부, 한국철도공사, 서중물류 등 물류社
 - 국외 - 중국·카자흐·우즈베크 철도공사

□ 시범사업 성과

- 중앙아시아 등 수출화물의 안정적인 수송루트* 확보
 - * OSJD 물동량회의 참여로 참여국가간 한국의 수출입물동량(쿼터) 연단위 확정 가능
- 항만과 국가간 경계역에서 화물적체 최소화로 아국기업의 물류비는 절감되고, OSJD 표준운송장 사용으로 업무절차는 표준화·간소화*
 - * (現) 국내철송계약(코레일) + 해상운송계약(국내해운社) + 국외철송계약(중국 등 국경 통과시마다 나라별 별도 계약) → (改) 국제복합운송철송계약(코레일)
- OSJD의 국제협정을 준용한 첫 국제복합운송으로 철도·해운을 연계한 유라시아 철도 진출 기반 및 철도물류 활성화

참고 3

국제철도협력기구(OSJD) 개요

- (공식명칭) Организация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Железных Дорог
 - OSJD는 러시아어 공식명칭 발음을 영어로 표현한 약칭
 - * O : 아르가니자찌야(조직), S : 사뜨루드니체스트바(협력), J : 젤레즈니흐(철), D : 다로그(도)
- (개요) 舊소련, 중국 등이 국가 간 철도화물 운송을 위해 창설한 기구로, 유럽과 아시아 간 운송협정 관장, 운송표준 수립(56.5 창설)
- (기능) 유라시아 대륙 내 안전하고 원활한 철도운송 실현을 위해 국가 간 협조사항을 논의하고 운송협정* 수립
 - * 국제화물운송협정(SMGS), 국제여객운송협정(SMPS), 복합운송협정 등
- (회원) 정회원 30개국*, 철도운영회사 40개社**로 구성되며, 장관 회의에는 관련 국제기구(OTIF, UNESCAP, ITF 등)에서도 참석
 - * 대한민국, 러시아, 중국, 몽골, 카자흐스탄, 우즈베키스탄, 체코, 폴란드 등
 - ** 대한민국(한국철도공사), 러시아(러시아철도공사), 중국(중국국가철도그룹유한공사), 몽골(울란바토르철도공사), 카자흐스탄(카자흐스탄 철도공사) 등

□ 그간의 경위

- '18.6월 : OSJD 정회원 가입
- '23.6월 : OSJD 장관회의 한국 개최, 정부 협정 3종* 가입
 - * 국제철도여객운송협정, 국제철도화물운송협정, 복합운송협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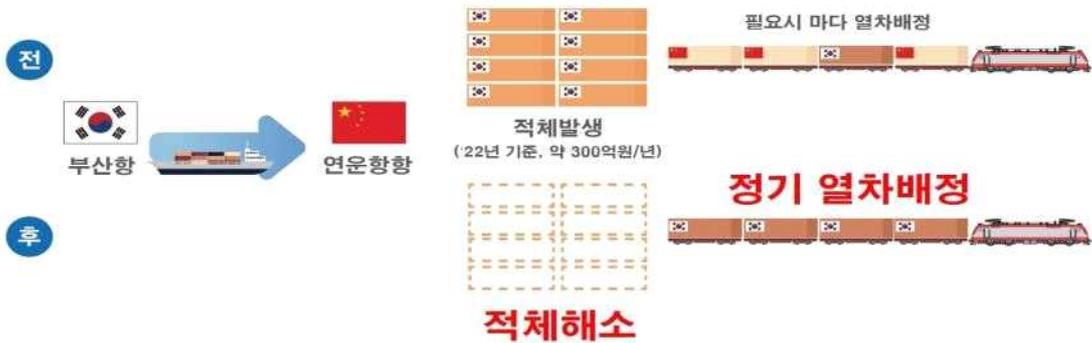
【 OSJD 정부협정 3종 】

- ① 국제철도여객운송협정 : 여객·수하물·화물 수송, 운임, 배상청구·소송, 운송 규정 등을 규정 → '24.2월 협정 발효
- ② 국제철도화물운송협정 : 화물운송계약 체결·이행·변경, 배상청구, 비용정산, 운송규정 등을 규정 → 현재 국회비준 준비중
- ③ 복합운송협정 : 철도, 도로 및 해상을 포함한 복합수송에 관한 협정 → 23.8월 협정 발효

OSJD(국제철도협력기구) 기반 국제복합운송 기대효과

○ 항만 적체시에도 정기열차 운행으로 물류비용 절감 가능

정부에서 OSJD 회의를 통해 확보한 물동량에 대한 정기열차를 운행하여 항만과 국경역에서의 적체를 최소화 함으로써 한국기업의 물류비용(연간 300억원)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.



○ OSJD 표준 운송장 사용으로 업무절차 표준화, 간소화 가능

국내물류를 일괄계약 함으로써 단일운송장으로 한국 출발역에서 최종 도착역까지 운송 가능합니다.



○ 정부주도의 직통열차 운행으로 물류기업 운송비용 절감 가능

하나의 물류기업이 직통열차 물량(55대)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여 정부주도로 다수 물류기업의 물량을 모아 직통열차를 운영함으로써 물류기업의 운송비용 절감(약 10%) 가능합니다.

